**제9차 총회**

* **개요**

|  |  |  |
| --- | --- | --- |
| 기간 | 2012-07-24 ~ 2012-07-27 | |
| 장소 | 중화인민공화국 > 닝샤후이족자치구 | |
| 주관 | 중화인민공화국 > 닝샤후이족자치구 | |
| 참가 | 5개국 37개 자치단체 | |
| 중화인민공화국 | 헤이룽장성, 산둥성, 허난성, 닝샤후이족자치구, 후베이성, 후난성, 산시성(옵:山西),산시성(옵:陝西), 텐진시(옵),  칭하이성(비), 지린성(비) |
| 일본국 | 야마가타현, 니이가타현, 토야마현, 교토부, 효고현, 시마네현 |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몽골국 | 헹티아이막, 볼강아이막, 우브르항가이아이막, 바양홍고르아이막, 훕스굴아이막, 바양-울기아이막, 오르홍아이막 |
| 러시아 연방 | 하바롭스크변경주, 자바이칼변경주 |
|  | \*기타 참가기관 | 한국 외교통상부, 주중한국대사관, 주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대외우호협회, 주시안한국총영사관, 한국전국시도지사협의회,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한)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전라남도 2014년 총회 유치 신청** |  | |  | | | |  | **▷한국 경상북도 사무국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 |  | |  | | | | **▷한국 경상북도 사무국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 ▷동북아지역간 경제협력방안 제안(광주광역시)**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 청년 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도입을 제안**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 회비제 도입 제안** | | | | |

* **닝샤선언문**

2012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 9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몽골, 러시아연방에서 온 회원자치단체 및 옵저버, 비회원단체,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외교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9차 총회 참석 대표들은 “협력심화로 만들어 가는 공동번영” 주제하에 총회 본회의를 마무리 했다. 총회에서의 다양한 발표 및 발언을 통해 화합과 공동번영의 이념이 지역협력과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화와 지역통합의 시대적 도전을 맞이하여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역사적 사명감에 대해 찬성하였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경제, 환경, 문화, 방재, 과학기술, 여성아동,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원단체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지지를 통해 신뢰와 호혜, 번영과 화합의 동북아를 건설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제9차 총회 참석 대표들은 총회의 마무리로서, 만장일치로 <닝샤선언문>을 채택하여 지역발전의 공동비전을 제시하였다.

o 연합 내부의 보다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한층 강화된 연합의 영향력과 흡인력으로 지역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o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 번영을 위해 회원단체뿐 아니라 비회원단체의 참여를 환영 하는 보다 열린 동북아 건설에 노력한다.

o 지역 장점들의 상호 보완을 통해 협력과 번영을 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시범지구를 건설 하여 녹색경제,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관광, 기후변화, 사막화방지, 해양어업 및 실업해소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지속적인 번영을 촉진한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기준아래 상호 신뢰와 협조, 협력이 지역 발전촉진과 공동번영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면서, 연합의 전 회원단체는 단결 협력을 위해 이상의 공동인식과 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한다.

부록:<닝샤선언문>행동강령

2012년 7월 25일

중국 닝샤 인촨

부록:<닝샤선언문>행동강령

<닝샤선언문>행동강령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제9차 총회에서 형성된 공감대와 선언문의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는 아래 행동강령을 발표한다.

1. 대한민국 전라남도의 2014년 총회 유치 신청을 의결한다. 2014년 제 10차 총회는 대한민국 전라남도에서 개최한다.

2. 대한민국 경상북도의 사무국 연임 및 장기존속 신청에 대해 의결한다. 새로운 역사적 기준아래 사무국을 장기 존속하는 것은 국제기구 간의 다각적인 조정 및 연락에 도움이 되며, 아울려 회원단체간의 협력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

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연합 신규 회원 가입 신청을 의결한다. 우리는 회원수 확대 및 회원지역 국가간의 협력강화는 연합의 발전 추세라고 일제히 인정한다.

4. 연합 사무국에서 제안한 청년인턴 교류 프로그램(PioNEAR)의 도입을 의결한다. 우리는 협력강화를 위해 회원단체들은 인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우선 청년들을 회원단체로 보내 연수사업을 진행한다.

5. 사무국에서 제안한 NEAR회비제 도입신청이 부결되었다.